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정체성 회복반

데이빗리 목사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차 CONTENTS





서 론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며 _ 4

제 1 장 나는 누구인가? _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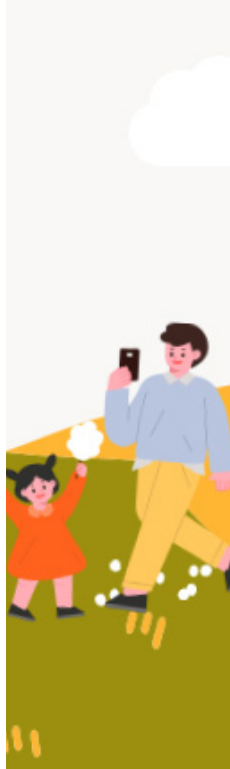
제 2 장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_ 16

제 3 장 예수님과의 만남 _ 23

제 4 장 왕의 자녀의 특권 _ 30

제 5 장 낮은 자존감 vs. 자녀 자존감 _ 37

제 6 장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_ 43



서론

/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며

서론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며

도입내용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진짜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지도입니다. 당신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태어난 걸작품임을 발견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사는 대

로 휩쓸려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단세포 아메바에서 시작해 원숭이를 거쳐 우연히 진화된 고등 동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게 됩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번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잣대를 들이댁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런 세상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때로는 남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남보다 못하다고 깊은 열등감에 빠져 시달립니다. 진짜 '나'는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갇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재를 펼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우주에 던져진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의 출생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물건은 '상품'이지만, 작가가 혼을 담아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든 것은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Masterpiece)'입니다.

이 '정체성 회복반' 과정은 뒤틀려버린 자화상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내가 단순히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태어난 존귀한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날 받아온 상처와 세상이 심어준 거짓말을 걷어내고, 창조주가 보시는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 6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를 묶아 매던 죄와 상처의 사슬을 끊고, 왕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진짜 이유, 가슴 뛰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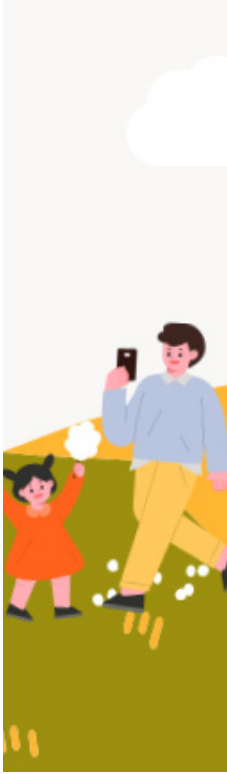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작품이다."

이제 그 설레는 회복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12월

데이빗리 목사





1 장

/

나는 누구인가?

제 1 장 나는 누구인가?

도입내용

당신은 어쩌다 생겨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 속에 태어난 걸작품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매기는 점수와 평판에 갇혀 진짜 내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진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세상이 말하는 나: 어쩌다 태어난 존재

가. 진화론적 관점의 허무함

(1) 단순히 세포가 분열해서 원숭이를 거쳐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

-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시작해,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을 거쳐 우연한 돌연변이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사람

이 되었다고 배웁니다.

- 이 관점에 따르면 당신의 존재에는 그 어떤 거창한 목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복잡한 화학 작용과 생물학적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지적합니다. (롬 1:21)

(2) 목적 없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

- 만약 당신의 뿌리가 '우연'이라면, 당신의 삶의 목적도 결국 '생존'과 '종족 번식'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 많은 사람이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해 공허해합니다.
- 목적이 없으니 인생은 허무해지고,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쾌락, 도박, 술, 마약 같은 자극적인 것을 쫓게 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1:2)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전 1: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 사회적 거울이 비추는 나

(1) 돈, 외모, 학벌로 매겨지는 가치

-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당신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연봉이 얼마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나?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나?"

- 세상이라는 거울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배경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니라." (삼상16:7)

(2)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과 우월감

- 세상의 기준에 나를 비추며 살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 이것은 시소 타기와 같아서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가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갈1:10)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갈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2. 성경이 말하는 나: 계획된 걸작품

가. 창조주가 직접 빛으신 고귀한 생명

(1)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닌, 작가의 혼이 담긴 작품

- 성경은 당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입니다. (창2:7)
- 성경에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쓰인 원어는 '걸작품(Masterpiece)'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혼과 사랑이 담긴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엡2:10)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

-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당신과 똑같은 지문,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하나님이 당신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당신을 만드실 때, 고유하고 독특하게 디자인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139:13)
-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시139:14)

[시 139:13]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내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 당신이 태어난 진짜 이유

(1) 부모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

- 부모님이 원치 않아서 태어났거나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하십니다. (렘1:5)
- 당신의 부모님이 만나기 전, 아니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엡1:4)

(2)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을 목숨보다 사랑하십니다. (사43:4)
- 세상이 당신을 거절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할지라도, 창조주는 당신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를 부르십니다. (습3:17)
-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기 위해 창조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43:7)

[렘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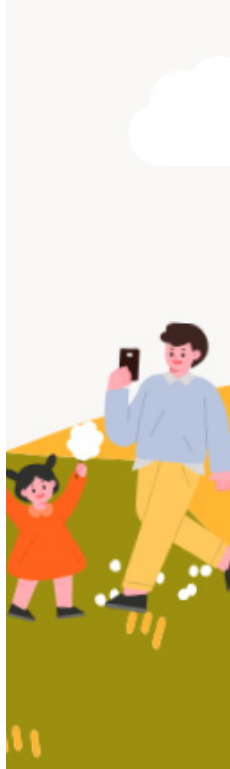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 43: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습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 장

/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제 2 장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도입내용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같이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1. 아버지 없는 고아의 비극

가. 영적 정체성의 혼란

- (1) 내 진짜 부모인 근원을 모를 때 오는 불안감
 -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뿌리이자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 성경은 이를 두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괴롭듯,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렘2:13)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2)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 하는 내면의 갈급함

- 뿌리가 뽑힌 나무는 아무리 물을 뿌려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돈, 명예, 인기, 술, 이성 관계 등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어도 목 말랐던 것처럼,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요4:13-14)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 죄가 가져온 단절

(1)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벽

-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고아처럼 사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
다. (사59:2)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생명력을 차단하고 있습니
다.

[사 59:2] 오직 너희 죄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
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
게 함이니

(2) 죄책감과 수치심이 만드는 거짓 자아

-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 수
치심이었습니다.
-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
고 무화과나무 앞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창
3:10)
-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
습을 감추기 위해 과장하고, 포장하며,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숨는 것입니
다.

[창 3: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
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
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2.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가.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

(1)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

- 진화론은 당신이 동물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가진 도장을 다시 파듯,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됩니다. (골3:10) 이것이 당신의 진짜 뿌리입니다.

[골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2) 우리 영혼의 고향을 찾는 여정

- 연어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오듯,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채워지지 않던 안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1)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혼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15:20)
-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집 나간 자녀가 돌

[눅 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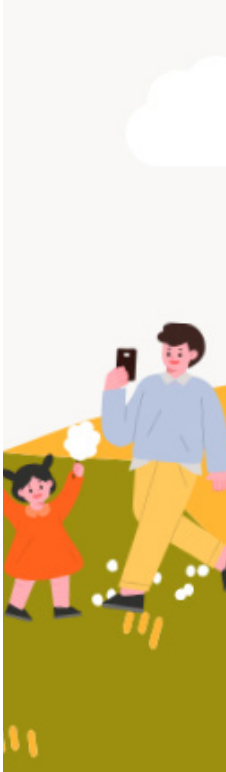
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
입니다.

(2)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

-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재산은 어디다 썼느냐? 꼴이 이게 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
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눅15:22)
-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
마나 망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
다.

[눅 15:22] 아버지는 종
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
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
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
고 발에 신을 신기라





3 장

/

예수님과의 만남

제 3 장 예수님과과의 만남

도입내용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종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보십시오.

1. 회복을 위한 대가 지불

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1)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의 자리를 되찾아 주시기
위함

-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막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 십자가는 우리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확증

-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나. 핏값으로 산 당신의 가치

(1) 짜장면 값은 짜장면의 가치, 예수님 핏값은 당신의 가치

- 시장 경제 원리에서 물건의 가치는 지불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은이나 금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벧전1:18-19)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당신의 몸값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2)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

-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셨습니다. (마16:26)
- 이 세상 모든 재물과 권력을 합친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 영접: 관계의 회복

가. 법적인 자녀가 되는 권세

(1)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호적에 입적됨

-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돈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이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선포입니다.

- 당신의 영적 호적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2) 종이나 노예가 아닌 아들과 딸이 됨

- 이제 당신은 눈치 보는 종이 아닙니다. 상속권
을 가진 아들과 딸입니다.
-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
을 자니라." (갈4:7)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
한 것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갈 4: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
나님으로 말미암아 유
업을 이을 자니라

나. 양자의 영을 받음

(1)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친근하
게 부르게 됩니다.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
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8:15)
-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우리는 창조주 하
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안길 수 있는 특권
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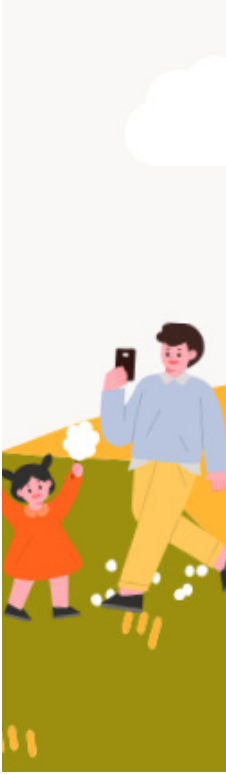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
바 아버지라 부르짖느
니라

(2)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함

- 관계를 회복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14:27)
-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4 장

/

왕의 자녀의 특권

제 4 장 왕의 자녀의 특권

도입내용

왕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심,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권리를 확인해 봅시다.

1. 보호받을 권리

가. 절대적인 안전지대

(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보호

- 부모가 어린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듯,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십니다.
-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와 함께

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121:4-5)

- 세상의 보험이나 경호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한 안전지대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2)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세밀한 관심

- 하나님의 보호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눅12:7)
- 당신의 작은 신음, 남들에게 말 못 할 고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5] 여호와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눅 12:7]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 동행의 약속

(1)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심

-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사41:10)
- 당신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혼자 방에 있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마28:20)

[사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고난 중에도 혼자가 아님을 확신함

-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사43:2)
- 험한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 공급받을 권리

가. 하늘 아버지의 창고

(1)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

- 부잣집 아이는 밥 굶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십니다.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6:26)
- 먹고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고아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마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19)
-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 기도의 특권

(1)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음

- 기도는 사정이 딱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4)
-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백지수표를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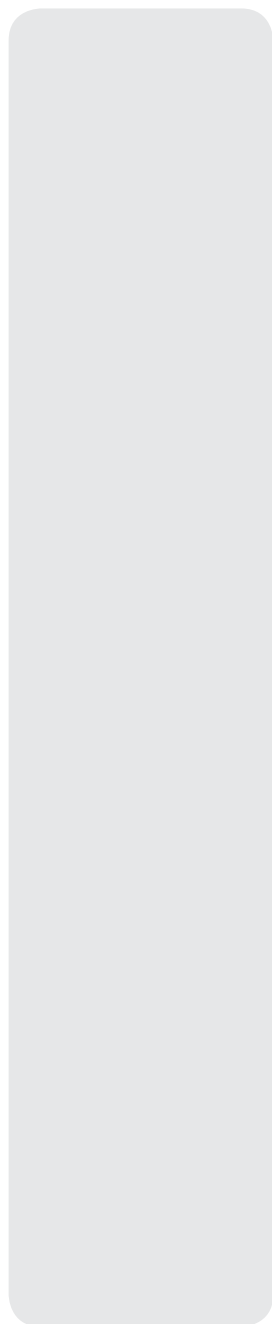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 대화하며 교제하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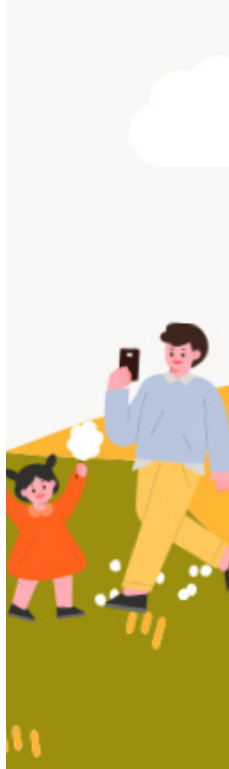
-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버지께 이야기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5 장

/

낮은 자존감 vs. 자녀 자존감

제 5 장 낮은 자존감 vs. 자녀 자존감

도입내용

병든 자아상과 깊은 열등감을 벗어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상과의 비교는 비참함이나 교만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되찾으십시오.

1. 상처와 열등감 치유하기

가. 과거의 사슬 끊기

(1) 부모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부터의 자유

-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너는 안 돼, 쓸모없어"라는 말에 묶여 살아갑니다.
- 그러나 이제 선포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뀔

-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조차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 당신의 아픈 과거, 수치스러운 기억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비교 의식 버리기

(1)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

- 비교는 기쁨을 훔쳐 가는 도둑입니다.
-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갈6:4)
- 남의 인생을 결눈질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갈 6: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2) 나만의 고유한 색깔과 가치를 발견함

- 장미는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고, 백합은 장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전 12:7)
-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명품입니다.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2. 거룩한 자존감 세우기

가. 정체성 선포하기

(1)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매일 고백함

-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벧전2:9)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고백하십시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2) 사탄의 정죄와 거짓말을 거절함

-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는 죄인이야"라고 참소합니다.
-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4:7)
- 당신의 자격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거짓말을 몰아내십시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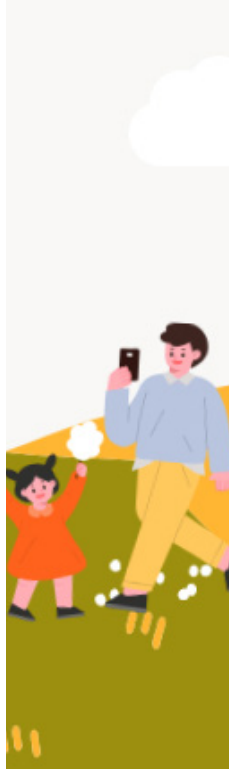
나. 사랑받는 자의 여유

(1)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음

-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일4:10)
-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참된 자유가 옵니다.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6 장

/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제 6 장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하는가?

도입내용

정체성을 회복한 당신은 이제 이 시대, 바로 이곳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단순히 먹고사는 생존을 넘어, 당신의 재능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슴 뛰는 사명을 발견하고 영원한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설계해 봅시다.

1.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

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은 없다

(1) 나를 이 시대, 이 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

- 당신이 21세기 대한민국(혹은 당신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것은 뱅뱅이 돌려서 떨어진 결과 아닙니다.
-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행17:26)

-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당신을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 나의 성격, 재능, 환경 모든 것이 재료가 됨

- 당신의 소심한 성격, 뜨거운 열정, 손재주, 심지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사명의 재료가 됩니다.
-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롬 12:4)
-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롬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나. 선한 일을 위한 지으심

(1)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님

-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이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엡2:10)
-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생명을 살리고 세

[엡 2:10] 우리는 그의만 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당신의 진짜 직업이고 사명입니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최고의 행복

-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기쁨이 가장 잘 작동하듯,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초대

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1)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냄

-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12:2-3)
-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파이프입니다.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2)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삶

-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5:14)
- 자존감이 무너져 우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빛 된 삶입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나.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

(1)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함

-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 땅의 보물은 썩이 먹고 녹이 슬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6:20)
- 썩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마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 는 순례자의 기쁨

-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나그네들임

다.

-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3:20)
- 바울처럼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
여" 달려가십시오. (빌3:14)
-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
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서 구원하
는자 곧 주 예수 그리스
도를 기다리노니

[빌 3:14]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
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정체성회복반 교재

초판 발행 2025. 11. 2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